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나침 반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5년 9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82호

발행인 : 유 진 형
편집인 : 박 상 호

2. 세계·민족복음화 어디까지 왔나 | 5. 21C 신 사도행전적 교회 (새순교회) | 6. 춘천선교대회 가능성을 말한다. | 9. 그리스도인들의 추석명절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를 통한
강원사랑운동본부 발족을 축하하며...

강원도 총 기독교연합회가 매년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라는 명칭으로 연합집회를 한 것이 올해로 6회를 맞이하였다. 지금까지 각 지역의 기독교연합회는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 본 기도회를 발전시키며 오늘에 이르렀다.

2005년도 강원도 총연합회장 춘천동부장로교회의 임신영 목사는 본 기도회를 명실공히 강원도의 18개 시 · 군 연합회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단순한 기도회가 아닌 강원도의 현 실정을 믿음으로 타개하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강원사랑운동본부'를 출범시킬 것을 계획하였다. 또한 이 기도회를 통해 교회나 성도들만을 위한 기독교연합회의 행사가 아니라 믿지 않는 도민들도 힘께 즐기며 함께 하는 일반 문화축제를 기획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임신영 목사는 사무총장 오승룡 목사(춘천성결교회)와 함께 올 여름 도내의 모든 기독교연합회 회장단 및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위해 도내 전 시 · 군을 순회하였다.

대망의 8월 28일, 주일 오전예배를 마치고 모든 강원을 사랑하는 18개 시 · 군의 성도들과 시민들이 호반체육관에 모이기 시작하였다.

오후 1시 40분, 1부 강원도의 자랑인 강원아리랑 합연을 시작으로 7만 8000여명의 사랑과 마음의 노래를 불렀던 김종찬, 해바라기, 바지락, 소리새 등의 출연으로 뜨거운 열기는 더해 갔다.



2부 '백두의 블꽃, 세계의 빛으로' 행사에는 김선도 광림교회 원로목사가 설교를, 릴런트 김혜자 권사가 간증을, 김진선 도지사, 한승수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 허천 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류종수 춘천시장과 유진형 춘천기독교연합회장이 환영사를 하였고, 진지하고 열정적인 기도 시간을 가졌다.

3부는 오후 7시부터 'MY LOVE 페스티벌'을 열어 마야, MC몽, 춘자, 조혜련, 하하, 김조한, 서문탁 등 도민을 위한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졌으며, 이 공연은 전국 네트워방송인 YTN의 음악전문채널을 통해 강원사랑의 열기가 전국에 전해졌다.

총인원 약12,000여 명의 도민들이 모인 가운데 치러진 이번 행사를 통해 모은 기금은 득거노인과 결식아동, 그리고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 김진선 도지사와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이명신 월드비전 강원지부장에게 전달되었다.

이번 집회는 강원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춘천의 모든 교회가 하나로 마음을 모으고, 장로연합회의 헌신적인 봉사로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번 강원도민사랑운동 결의대회에서 보여주었던 강원을 향한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사랑은 2014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로 이어져서 경제와 문화의 발전과 선교의 장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2010 춘천레저총회와 원주의 혁신도시유치 등을 통해 보석같이 빛나는 생명과 축복의 강원도로 변화될 것을 기대해 본다.

[편집부]

이달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인

· 강원사랑운동본부의 활성화를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황리에 치뤄진 횃불기도회를 통해 기독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여 2014 동계올림픽 개최 등 비전 있는 강원도의 미래를 활짝 열고, 또 이를 통한 선교의 장이 강원도에 활짝열리도록.

· 춘천레저총회의 개최지 결정 축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귀한 일이 결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러나 모든 시민들의 민의를 합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되도록.

· 춘천성시화를 위한 부흥회를 위해

9월 25일부터 열리게 되는 성시화집회를 통하여 춘천 과반전도운동이 활성화 되고, 함께 하는 모든 기관들의 유기적인 연합이이루어지도록.

· S.F/LA 세계 성시화대회

LA와 SF에서 열리는 성시화대회 기간 중 세계 성시화운동본부의 총회가 개최된다. 성시화를 통한 도시의 변화와 부흥을 도모하는 본 대회는 각 지역의 흘리클럽과 성시화 임원들이 모두 모여 총회를 가지게 된다. 본 성회의 원활한 개최와 하나님이 세우는일꾼들을 통한 세계복음화 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 카페 크리스찬을 통한 문화사역의 확산

지금까지 평화교회에서 다각적인 투자와 헌신으로 기틀이 마련된 까페 크리스찬의 운영을 성시화운동본부와 연계하여 운영위원을 위촉해서 연합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한 크리스찬 문화의 확산이 모든 계층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장경동 목사 초빙

2005 춘천 성시화를 위한 선고대회

9월 25일(주일) 저녁부터 10월 1일(토)까지

♠ 부 흥 회 – 일 시 : 9월 25일(주일) 저녁부터 27일(화) 저녁까지 (새벽, 낮, 저녁 집회)
강 사 : 장 경 동 목사(대전 중문침례교회)
장 소 : 석사감리교회
주 최 : 춘천기독교연합회

9월 28일(수) 저녁부터 10월 1일(토)까지

♠ 성시화 포럼 – 주 관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친선축구대회 – 주 관 : 포이맨(목회자축구회)
♠ 연합찬양대회 – 주 관 : 월드비전
♠ 복음 성가제 – 주 관 : 직장선교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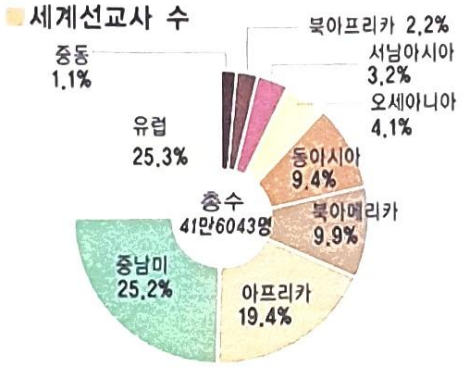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어디까지 왔나

세계 복음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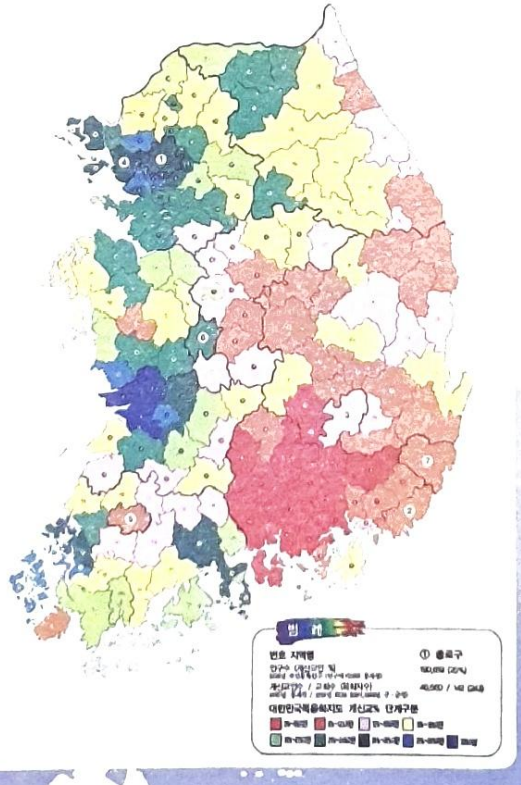
얼마 전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 비전을 심고 교회와 종족을 연결, 종족입양을 통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전도종족입양본부]가 복음화율이 낮은 10개 국가 명단을 발표했다. 발표된 명단에는 아프가니스탄이 사실상 복음화율이 0%에 가까워 최저 복음화율을 보였으며, 그 후 몰디브, 알제리, 소말리아, 부탄, 튀니지, 이란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로 아프리카 북부와 중동지역에 밀집해 있어 그 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선교정책이 나타나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아울러 세계에서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분포된 국가는 인도로 2,073개 종족이 살고 있으며, 파키스탄(474개 종족) 중국(385개 종족) 네팔(353개 종족)등이 뒤를 잇는다. 또 현재 세계선교사 총 수는 41만6043명으로 유럽(25.3%) 중남미(25.2%) 아프리카(19.4%) 북아메리카(9.9%) 동아시아(9.4%) 오세아니아(4.1%) 서남아시아(3.2%) 북아프리카(2.2%) 중동(1.1%) 순이다.



국내 복음화율

한편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도시는 어디며, 교회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 시, 도 별로 복음화율이 제일 높게 나타난 지역은 전북 지역이었다. 익산시가 34%이며, 다음으로 과천시 32%, 군산시 32%, 김제시 30%, 올림군 30% 순으로 나타났다. 복음화율이 제일 낮은 지역은 제주도 8%, 경상남도 9%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서초구가 각각 30%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의 경우 모두 30%을 넘어 서울 경인지역과 함께 이 지역이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게 나타났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도시 지역의 복음화율은 농어촌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도고농저(都高農低)」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기독교인의 거주지역을 분석해보면 수도권 집중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인 10명중 6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며 전국적으로 서쪽이 동쪽보다 복음화율이 높은 「서고동저(西高東低)」현상을 보였다. 영호남권의 기독교인수를 비교해보면 「서고동저」현상이 두텃하게 나타나고 있다. 호남지역의 인구는 영남의 40.9%에 불과하지만 기독교인수는 오히려 영남의 1백19만7천여 명 보다 약 19만 명이 많은 1백38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호남권의 복음화율이 영남권보다 약 2.1배 높은 것이다. 또한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이 소득 및 교육수준이 높았으며, 인근 지역에 비해 특이하게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은 지역 목회자의 헌신의 결과였다. 예를 들어 군 선교에 힘쓰고 있는 계룡대나 옹진군 등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같은 분석결과를 놓고 볼 때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에 대한 공격적인 전도 전략이 요청된다. 특히 복음화율이 낮은 동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증보기도와 교회개척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춘천 성시화운동의 확산과 강릉의 사례

이러한 가운데 춘천에서 시작된 성시화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각 도시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도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복음화율을 높이려는 시도로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컨대 강원도 지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도시 중의 하나인 강릉의 경우에도 지난 해 강릉기독교연합회와 함께 진행된 'LOVE 강릉'행사는 성시화운동의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 알려져 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가 이처럼 지역을 성시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게 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이 지역을 휩쓴 각종 재해가 배경이 되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는 "자연재해의 배경에는 강릉단오제로 알려진 뿌리 깊은 무속신앙이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무속신앙으로 물들어 있는 강릉시민들의 영적 상태를 깨우는 것이 '2004 LOVE 강릉' 행사의 목표라고 밝힌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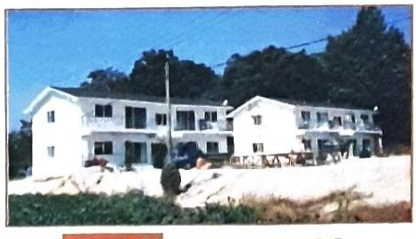
▶ 강릉시는 해마다 음력 4~5월이면 전 지역주민이 대관령의 국사성황신과 여성황신을 모셔놓고 굿판을 벌이는 단오제 준비에 심혈을 기울인다. 강릉단오제는 유교식 제례와 무당굿이 혼합된 무속신앙으로 음력 4월 5일 신주 빗기로 시작해 4월 보름에 대관령에 올라가 산신제를 지내고 굿판을 벌인 뒤 국사성황신을 강릉시내로 모셔오는 행사를 갖는다. 이 행사에는 시장을 비롯해 기관장과 많은 시민이 참여, 장관을 이룬다. 그리고 음력 5월 5일부터 남대천 일대에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단오 굿을 벌인다. 지역 전체가 무속신앙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강릉시는 단오제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대규모 국제민속관광제로 열 계획이며 예산도 110억원을 편성해놓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때문에 강릉시에는 복음 전파가 매우 어렵다. 강릉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1902년. 원산에서 복음을 전하던 하지 선교사가 강릉의 한 시저를 빌려 예배를 드린 것이 강릉중앙감리교회의 시작이다. 복음이 전파된 지 102년. 하지만 강릉지역에는 160개 교회에 성도가 1만여 명도 채 안된다. 강릉시 인구 24만여명 가운데 복음화율을 4%로 보는 통계도 있다. 이는 전국 최하위이다.

각 도시마다의 특색을 살려 성시화운동에 헌신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최대명령(행1:8, 마28:18-20)에 순종하며 복음화율을 높이는 중요한계기가 될 것이다.

[편집부 최상도]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 : 박 상 호 조 영 춘
최 영 조 최 상 도
정 재 호 이 영 규
권 기 찬 김 춘 배
김 미 경
원고투고 및 광고 문의
200-091
춘천시 효자1동 373-90
춘천성시신문 앞
대표전화 : 033)256-1260
FAX : 033)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010-3118-9355

Habitat for Humanity Chuncheon
해 비 타 트
-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춘천지회 -
우)200-030 춘천시 요선동 9-1 TEL : 254-0009 FAX : 254-8877 E-mail : chuncheon@habitat.or.kr



소망의 마을 Habitat주택 입주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주식 행사 계획
1. 일 시: 2005. 9. 14(수) 오후 2시
2. 장 소: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62-6번지(상천초교 뒤)
3. 계 획 안 내
※1부 - 예 배
※2부 - 준공 및 입주식 축하 행사
※3부 - 다과 및 친교, 주택 둘아보기
★행사 종료 후 귀가시 기념품 증정.

문의처 ☎254-0009

일하는 기쁨, 넘치는 감사

첫번째 기독 기업체 탐방으로 알로에마임 춘천지사 이판호 권사(석사교회)편입니다.

창립 이후 알로에마임에서 11년 동안 매출 대상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알로에마임 춘천지사가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까? 익숙한 더위가 비와 함께 사라져버린 가을이 시작되는 늠에 알로에마임 춘천지사 대표 이관호 권사를 만났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알로에마임 춘천지사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신앙의 첫 걸음

"제 이름이 좀 독특하죠?"라는 물음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이관호', 위로 현 네 명을 잃은 부친이 다섯 번째로 얻은 귀한 아들마저 잃을까봐 "절에 팔았다"란 뜻으로 지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교회에 나가면 아들 죽을까봐 유치원 때부터 나가기 시작한 교회를 유난히 아버지께서 싫어하셨고 지게 짝 들고 쫓아 다니실 정도로 훼방이 많으셨다고 한다. 유별나게 불심(佛心)이 깅한 집안에서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었냐고 물으니, 서울 길동 출신의 서울토박이 이 권사의 동네에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 여럿 계셨는데 이분들의 손에 이끌려 교회 주일학교에 나가게 된 것이 신앙의 첫 걸음이라고 한다. 이때 뿌리내린 신앙의 초석이 훗날 시련을 겪고 방황한 이후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아주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그렇기에 그 누구보다 주일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버지의 유별난 핍박만큼 이 때의 신앙 또한 뜨거웠다. 한 일화로 29kg으로 왜소했던 초등학교 6학년 시절 교회 여름부흥회 마지막 날 참석했다가 새벽에 뜨겁게 성령체험을 하고는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목사님을 붙들고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눈물로 간구했다고 한다. 이를 기특히 여긴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셨고, 기도의 응답으로 훗날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고 어머니께서는 권사님으로 돌아가시는 날까지 평생을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셨다고 한다.

고난과 역경의 시절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어려웠던 시절에 이 권사는 운동으로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중학교는 야구선수로, 고등학교는 축구선수로 뛰었다. 그러나 운동을 하게 되면서 목사님이 될 거라고 교회 어른들이 기대했을 정도로 뜨거웠던 신앙은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이후 공무원 생활을 잠깐 하다가 다시 제일은행의 축구선수로 활동했다. 군 제대 이후 대림산업에 들어가서 한 때 경제적인 부유함도 누렸으나 표면적 부유함과는 반대로 신앙적으로는 더욱 피폐해져갔다. 그러다 건축업을 하던 그가 부도를 맞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누군가 '절망은 신의 출발' 이라고 했던가? 이후 4~5년의 역경의 시간동안 길코 놓치 않으시고 놀랍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한일산 기도원에 숨어 지내기도하고 매일 술을 마셔야 잠이 들 정도로 고난과 시련의 그 시절. 그에게 다시 회복할 힘을 주었던 것은 부흥회에서 들은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몰래 성미와 라면박스를 집에 놓아두었던 출석교회의 사모님과 같은 분들의 도움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컸던 힘은 바로 아내였다. 정통 유교집안에서 성장한 아내가 결혼 후 시어머니가 무서워 나가기 시작한 교회생활이 지금까지도 매일 밤과 새벽기도를 거르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열심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밑바닥까지 내려간 남편에게 불평·불만을 한 마디도 밖으로 꺼낸 일이 없다. 오히려 항상 남편을 향해 존경의 시선과 신앙 안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주었다.

그 어려웠던 시절 본업이 건축인지라 교회 건축에 도와줄 수 있냐는 제의에 선뜻 나섰고, 한 번은 새벽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내가 당시 삶의 터전이었던 전세집을 교회 건축에 내어 놓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이 권사는 기쁘게 하나님 전에 내어놓고 한동안 월세살이를 하면서도 오히려 헌신할 수 있어 기뻤고 감사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권사는 말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했던 이 때의 아주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은 이후에 감당하지 못할 큰 축복을 주셨다"고.

믿음의 기업 알로에마임

사업을 재기하는 과정에서 여러 일에 손대다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알로에화장품 방문판매를 시작으로 알로에마임을 경영한지 올 해로 11년째가 되어간다. 알로에마임 본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라는 표어로 사업하는 믿음의 기업이다. 알로에마임 춘천지사는 '일하는 기쁨, 넘치는 감사'가 표어이지만 이 권사는 "정직과 신뢰"를 더 강조한다. 이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정신이기에 앞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신뢰를 말한다. 그렇기에 그는 이 두 단어를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큰 가치를 두고 살고있다.



알로에마임 춘천지사 300여명과 원주지사의 100여명의 식구는 아침 9시에 리더들이 먼저 심김의 정신으로 하루를 창소로 시작한다. 이후에는 사내에 마련된 예배실에서 찬송하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통성기도로 예배시간을 마친다. 하루의 처음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시작하는 기업이기에 11년 연속 매출대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북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이 권사는 사내에서 항상 복음송가를 틀고 아직까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내 직원들에게 "언제 교회 나갈꺼야?" "저 친구를 위해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권면한다고 한다. 이러한 이 권사의 등살(?)에 어느덧 직원의 70%가량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일로에 마임의 또 다른 이름은 '일로에 교회'다.



호세아서 장 절의 내가 결코 너를 내 손에 놓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그 누구보다 혹한 시련의 때를 지났기에 가질 수 있는 평안한 미소가 인상적이었던 이판호 권사는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있다. 그것은 현재 출석하고 있는교회의 중고등부 부장을 맡으면서 더욱 깊이진 꿈인데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센터를 짓는 일이다. 문화사역과 각종 후원사역에 뒤에서 소리 없이 섬기는 겸손함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춘천의 성시화를 앞당길 역군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심이 아닐까? 앞으로 이판호 권사 같은 지역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독 기업인이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취재 권기찬/사진 김미경]





선 교

아프리카 맛사이족을 만나고 와서...

서울 임마누엘감리교회(담임 김국도 목사) 아프리카 단기선교단에 멤버로 10박 11일(7월 27~8월 6일)간 케냐 공화국과 탄자니아 공화국 선교현장을 다녀왔다.

서울 임마누엘교회에서 파송된 안찬호 선교사 내외와 르완다출신이며 탄자니아 원주민으로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은 마몽구 목사님의 사역현장을 볼 수 있었다.



아프리카인들 중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폐쇄적인 맛사이족이 살고 있는 케냐 카지도 지역선교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안찬호 선교사(부인 김정희 사모)는 1991년 3월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 받고 일사순교(一死殉敎)의 믿음과 각오로 선교를 시작하였다. 선교초기에 맛사이족들에게 잡혀 문초를 당하기도 했지만, 믿음과 사랑과 용기를 보여줌으로 추장을 이해 설득시켜서 그들로부터 신뢰받는 선교사로 14년 동안 선교를 계속해오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셔서 안찬호 선교사를 통해 맛사이족 지역에만 교회 23개 처, 초등학교 15, 중고등학교 3, 유치원 19, 병원들을 세워서 문명을 외면한 채 짐승처럼 먹고 짐승처럼 생활하던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학문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쳐서 사람답게 사는 길을 열어주고 가르쳐 따라오게 하는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와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면서 여러 차례 감탄하고 감격의 눈물도 흘렸다고 한다.

탄자니아에서는 마몽구 목사님을 통해서 31개 처의 교회와 전인학교, 컴퓨터학교, 유치원들과 신학교가 세워졌고, 탄자니아와 아프리카 복음 선교를 위하여 힘써 일하게 하셨다.



어둠이 깔린 나이로비 죠모케냐타 공항에 내리자 100여명이 넘는 맛사이족들이 「임마누엘 선교단을 환영합니다」「김국도 목사님 감사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도로 양편으로 서서 "엔카이아 엔카이아 이야라이 엔카이아"를 노래하고 흠주며 열렬히 환영해 주었다. 우리가 차례차례 악수하며 "할렐루야, 잠보"라고 인사를 했더니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맛사이족들의 이런 환영에 나는 충격과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공항에서 8대의 소형승합차에 나누어 타고 엘레라이 선교본부를 향해 흙먼지를 헤치면서 빔길을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앞을 가로막고 창으로 위협하며 차를 세우는 맛사이족들을 만났다. 말도 통하지 않는 맛사이들에게 끌려 내린 우리들은 겁박당하고 주머니를 털리고 핸드백을 빼앗겼다. 이런 맛사이들의 사정없는 행패에 우리들은 당황하고 잘못 온 것이 아닌가하며 순간 두려움에 떨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은 우리들을 환영하는 맛사이들의 세레모니였다고 한다.

첫째날 밤은 맛사이족 가정에서 1대1 민박을 하며 맛사이 가족들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었다. 나는 젊은 여인 세레나와 그의 아들 초등학교 학생인 길리언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면서 렌턴을 켜고 무인지경 초원의 칠흑 같은 밤길을 40여분 걸었다. 두려운 마음을 기도로 달래치면서 따라갔다. 밤 12시 30분쯤에 도착한 맛사이의 집은 세까만 싸풍 집인데 봉고승합차보다 조금 컸다. 출입문은 자기들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좁은 문이었다. 벵수들 때문이란다. 이 작은 집은 방이 다 5개하는 1자 집인데, 이 속에서 9명의 식구들이 살고 있었다. 잠을 자려고 누었더니 통나무 마루방인데 개미가 짧아서 밤늑이 문지방 밖으로 나간다.

세레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30여분동안 소리 내어 기도를 하였다. 믿음이 좋은 여인 것 같았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아침 인사를 나누고 시계와 렌턴을 선물했더니 자작한 십자가 목걸이와 팔지를 걸어주는 게 아닌가! 기도하자고 했더니 모두 머리를 숙였다. 일일이 안수하며 간절히 축복기도를 하였다.

아침식사로는 그들이 발효시키기 위해 썩힌 냄새나고 건더기 있는 우유를 한 잔 받아들고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소화가 잘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얼굴 펴고 간신이 먹었다. 그러나 향기 있고 달달하고 따뜻한 차는 뱃속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나중에 팀원들과 민박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는데 내가 갔던 집은 썩 잘사는 수준의 집이라고 했다.

7월 30일 토요일 오전에는 우리 팀이 각 교회로 흩어져 동시다발적으로 세미나와 부흥회를 개최하였다. 추장을 비롯한 많은 교인들이 열렬히 환영해 주었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은 교실에서 걸상을 들고 참석했다. 임마누엘교회 이강민 집사가 영어로 한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맛사이들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였다. 맛사이족들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염소를 우리에게 선물했다.

오후에 있었던 맛사이들의 찬양경연대회는 정말 장관이었으며 감동적이었다. 큰 상금이 걸린 이 대회에는 23개 팀이 준비를 위해 열심히 모이고 전도하고 기도하며 연습하였다고 한다. 이 대회는 교회들끼리 단합하고 양적 질적 부흥과 성장을 이루도록 한 전략이었던 것 같았다. 이 대회에는 맛사이의들의 최고의 민속의상과 짐승의 가면을 쓰고 창과 막대기를 들고 맛사이들의 곡조에 신앙적 가사를 붙여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는데 너무나 멋진 예술이었다. 이 축제에는 추장들과 유지들이 와서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도 보였으며 양과 소를 잡아 통나무 불에 바베큐를 해서 들어먹는 풍경도 생고기만 먹던 이들의 변화된 모습이었다. 어쩌면 이런 경연대회는 맛사이들에게 있어 역사적 대축제였을지 모르겠다.

또한 우리는 선교여행 기간 동안 케냐의 인부꼬 고등학교 기공예배, 슙탄지역에 엠알리 임마누엘교회 기공예배, 임마누엘 남자고등학교 준공예배에 참석하였는데, 이 교회와 학교들은 임마누엘교회에 뜻있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기념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었다. 퍽 부러웠다.

탄자니아에서도 전인학교 준공, 예배당 준공, 유치원 준공 등 예배에 참석하였다.

현대문명을 등지고 원시적이고 폐쇄적이고 가난하고 병들어 죽어가며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사랑과 생명의 빛을 보내주셨다.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물질을 지원하여 교회와 학교, 병원과 각종 문화시설을 세워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질병을 고쳐 줌으로 짐승처럼 살던 이들이 사람답게 살게 되었다. 주일이면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아침이면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모습, 선생의 윤리와 도덕을 알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김국도 목사님의 해외선교 철학은 "단독적인 선교로서 이룸이 아니라 나타내려고 하는 부분적 선교가 아니라 인적·물적 자원을 아낌없이 집중적으로 쏟아 붓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임마누엘교회의 아프리카 선교의 전략은 대형교회들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 여행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복된 나라이며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나라를 향하신 선교의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다시금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예수 잘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다.

동부연회실업인선교회장 이학규 장로(역사감리교회)

어머니와 딸 세대가 함께 하는

제시뉴욕 레모네이드 춘천점



춘천에 새로운 패션명품점

가죽 · 모피 · 에복전문

대표 전 순 천

위치 : 조양동 조흥은행본점 앞 ☎ 252-7262

세경볼링센타

매주 토요일 오후2시~3시30분 무료강습



대표 이 용 운 집사

(온누리장로교회 · 춘천시볼링협회 전무이사)

위치 춘천시 석사동 694 세경상가(지하)

☎ 261-6184~5 / 011-9969-6702 cafe.daum.net/ccbowling

21세기 신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의미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새순교회(김헌곤 목사)편입니다

춘천 새순교회는 1998년 12월에 창립된 교회로 사람에 비유한다면 만 7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교회에 속한다. 하지만 새순교회는 지난 7월 연건평 750평을 건축하고, 춘천 성시화와 21세기 신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기 위해 김헌곤 목사와 온 교우들이 힘써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교회이다. 그 성장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



김헌곤 목사와 춘천

경기도 오산교회를 섬기다 지난 2003년 9월에 춘천 새순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부임한 김 목사는 춘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그는 춘천에서 열리는 주요 모임에 열정적으로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수시로 개진한다. 춘천 출신도 아닌 그가 이렇게 춘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친근감을 가지게 되었을까. 김 목사와 춘천과의 인연은 훨씬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로 1972년 춘천 성시화 운동과의 만남이다. 춘천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1972년 춘천 성시화운동의 현장에 청년 김헌곤 목사가 있었다. 당시 김 목사는 군 생활을 막 마치고 제대복을 입은 채 무엇인가에 홀린 듯 춘천 성시화 집회에 참여하게 된다. 친구들, 선배들과 함께 경춘선 기차에 몸을 싣고 내려오던 기억. 일주일간의 춘천 거리전도. 이 집회에서 김 목사는 성시화와 민족복음화에 대한 위대한 꿈을 잉태했다고 회고한다. 그런데 30년 만에 주님이 다시 그를 춘천으로 부르셨다! 바로 이 대목에서 김 목사는 하나님의 강한 섭리와 소명감을 느끼게 된다.



순교의 피

김 목사의 고향은 전북 정읍이다. 김 목사의 가계는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목회자 가정일 뿐만 아니라, 순교자의 가정으로도 알려져 있다. 김 목사의 부친 김용은 목사는 한국 교계에 잘 알려진 목회자로 한국이 낳은 시대의 부흥사 이성봉 목사, 이명직 목사 등과 함께 사역하였고, 성결교회 총회장(기독교대한성결교회)을 지내기도 한 살아있는 한국 교회사의 산 증인이다. 부친 김용은 목사는 고향인 전북 정읍의 두암교회 담임 목회자였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공산당은 기독교를 박해하였고, 특히 북음이 일찍 들어온 정읍지역은 더욱 그러했다. 공산당은 두암교회에 불을 지르는 등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살해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김용은 목사의 모친(김헌곤 목사의 조모), 둘째 아들(김헌곤 목사의 형)과 동생 내외, 조카 3명 등 22명이 함께 순교하였다. 이때 김용은 목사의 모친 윤임례 집사는 공산당의 고문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찬송과 기도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친 김용은 목사는 그 후에 군산의 중동교회를 개척하여 38년 동안 섬겼으며, 침례한 삶과 열정적 전도사역, 민족에 큰 은혜, 특히 고아원 사역과 교도소 사역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된다. 김용은 목사는 평생을 '무릎장, 무주택, 무페를 원칙'을 고수하고 은퇴하였다. 김헌곤 목사는 이런 부친으로부터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를 아는 동료 목사들은 부친의 침례함과 약자에 대한 사랑, 목회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모습이 흡사한 신앙 유전이라고 귀띔한다.

교회건축

김 목사는 1976년 독립문 성결교회에서의 전임 사역(전도사)을 시작으로, 순창 동계교회(1979~1984)를 거쳐, 남원교회(1984~1995)개척과 오산교회(1995~2003)를 섬겼다. 김 목사가 새순교회에 부임하였을 때 교회당은 2001년 1층을 완공한 후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 김 목사의 부임 이후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당 확장의 필요를 놓고 다시금 교우들 사이에 은밀한 기도가 시작되었다. 대지 구입비를 포함하여 총 공사비는 20억원 가까이. 연력이 짧은 새순교회로서는 여간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온 교회가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의견을 나누던 중 대다수의 중지를 모아 증축에 들어가게 되었다. 김 목사는 말을 아끼지만 건축을 통해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했다고 한다. 김 목사는 교회 증축 중 필요 이상으로 헌금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의 목회철학도 그러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친히 마치시리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힘에 진하도록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다. 건축헌금을 위해 자신의 전세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처럼 드린 제직도 있었고, 결혼자금을 내놓은 청년도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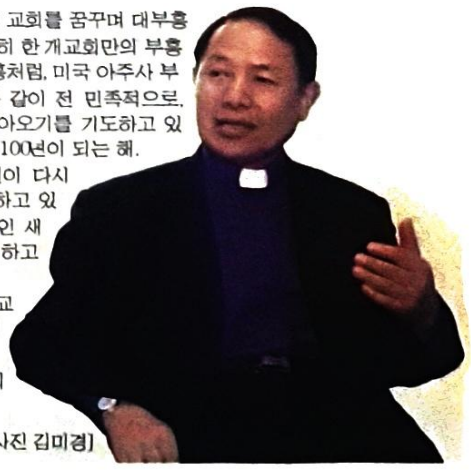
개혁지향적인 교회

김헌곤 목사는 진보와 보수를 모두 아우른 통 큰(?)목사로 알려져 있다. 김 목사는 학창시절 신학 수업과 함께 1:1사역과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네비게이토 선교회와 한국대학생선교회(CCC)에서 오랜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복음적 훈련이 보수적 성향으로 치우치는 경우와 달리 김 목사는 매우 사회 개혁적이다. 이는 제직들의 생각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래서 교회당 완공 감사예배를 드릴 때도 행사 축의금도 일절 받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새순교회는 강단에 의자 놓지 않기, 강대상 꽃 장식 절제하기, 절제된 재를사용 운동을 펼치고 있다. 사실 김 목사는 지난 시절 인권운동, 민주화운동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회장과 전라북도 인권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전두환 정권의 실세였던 전경환 달러 유출사건을 제일 먼저 언론에 알림으로 정치 쟁점화 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김 목사에게서는 그런 정치적인(?) 활동이나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김 목사는 1970년대, 80년대, 광풍처럼 몰아쳤던 그 시대를 비정상적인 시대로 돌린다. 시대와 함께 아파했던 김 목사, 지금은 교회의 사명이야말로 하나님나라 확장에 있음을 절실히 느낀다고 한다. 김 목사는 과거의 사회참여 경험을 통해 열정만 가지고는 시대를 변화시킬 수 없으며, 열정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점에 깊은 성찰이 있었다. 오직 성령만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김 목사는 힘주어 말한다.

대부흥을 주소서

지금 새순교회는 신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대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개교회만의 부흥이 아니라 영국 웨일즈의 신앙부흥처럼, 미국 아주사 부흥처럼, 1907년의 평양 대부흥과 같이 전 민족적으로, 전 교회적으로 부흥의 계절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다. 2007년은 평양 대부흥운동의 100년이 되는 해. 이 시기를 기점으로 성령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도록 전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증축이후에는 독창적인 새벽기도운동과 셀 교회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21세기 신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는 새순교회를 성령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64-0291~2 /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갈비 · 냉면전문
송추가마골
소문난 갈비맛의 名家
033-264-0900
애막골 GS마트(구 LG마트) 뒤에 위치
[대형연회석 완비]
송추가마골 춘천점
왕갈비 가마골갈비 생갈비 버섯생불고기 생공등심
생등심 돼지왕갈비 꼬리곰탕 갈비탕 우거지탕
청국장 돌솥비빔밥 새싹비빔밥 물냉면(메밀평양냉면) 비빔냉면(함흥냉면)

참사랑 내과의원
내과 · 소아과
▶ 비만 크리닉
▶ 노화방지 크리닉
▶ 갱년기 크리닉
10월 4일 확장 이전
※ 위 · 대장 내시경 전문의원
내과전문의 원장 정 형 만 ☎ 263-7560

춘천선교대회의 가능성을 말한다!

참석: 강원기독학생회(IVF; 박용한, 캠퍼스 디렉터), 어린이 전도협회(CEF; 전영진, 춘천지회 대표), 예수제자운동(JDM; 구영록, 춘


피종호목사

조: 반갑습니다. 여름행사는 은혜 중에 마치셨는지요? 춘천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귀한 분들을 뵙게 되니 새로운 열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변화하는 시대를 향한 전략적인 춘천선교대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준비해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피: 벌써 3년이 지났군요. 매년 계획되고 실행되는 춘천기독교연합회의 부흥성회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좀더 전략적인,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선교대회가 필요하다는 고민과 확신을 가지고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들의 잠자고 있는 영성에 불을 붙이고, 시대를 향한 기독인들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전략적인 선교대회를 위해서는 선교대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강원기독교 총 연합회에서 8월 28일에 강원도민사랑운동 결의대회를 성대하게 치루기 때문에 곧이어 있게 되는 9월 선교대회를 효과적으로 준비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심: 3년 전 선교대회가 끝나고 평가회를 가지면서 매년 춘천선교대회를 전략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 춘천선교대회가 복음으로 시대를 이끌어나가면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의 선교대회가 되어야 할까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 부흥회 성격의 연합집회가 3년 전부터 선교대회를 전환되기 시작했는데요. 선교대회를 효과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리더십의 마인드가 다음해로 전수되지 않으면 방향성이 상실되겠지요. 또 한 가지는 춘천선교대회가 지역교회의 영적 필요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선교단체들의 욕구를 채우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교회는 지역교회로서의 사명과 영적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선교단체는 선교단체가 감당해야 할 선교지의 독특한 개성과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인 선교대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교회와 선교단체의 선교방향성을 구분해서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박용한간사

피: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선교대회가 꼭 필요하고, 전략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신앙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성경적인 올바른 영성을 전수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의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박: 진정한 연합운동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어요. 춘천지역의 복음화와 성시화를 위해서 교회와 선교단체는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연합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춘천선교대회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 싶구요. 선교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일꾼들을 양성하는 동시에 교회와 춘천을 바라보는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어린이전도협회의 주된 사역은 주일학교 교사들을 훈련하는 것이 주된 사역의 목표입니다. 전도하는 교사를 양육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절대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전도협회 사역에 혹 오해가 계신 분이 있을까 싶어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교회의 일꾼들을 빼앗아가서 전도협회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저희들이 늘 조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교사들을 어떻게 양육, 배출할 수 있을까? 하는 과제입니다. 저희들을 믿고 기도해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선교단체가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 교회로 파송하려는 비전과 헌신이 없다면 존재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선교단체의 사역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선교단체를 믿음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협회에서 교사들을 훈련시킬 때 강조점은 "교회를 부흥시키자"하는 것입니다.

심: 춘천선교대회는 처음 의도와 시작이 참으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는 욕심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우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인 상황은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과 영적 욕구가 있습니다만, 개개의 선교단체는 대상도 좁고, 협의의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에 맞추다 보면, 선교단체가 망하게 되고, 선교단체에 맞추다 보면 교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강사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동원할 수 있는 유명한 강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선교단체의 입장에서는 유명하지는 않아도 마인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사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춘천선교대회의 이상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소규모의 선교대회를 지속적으로 기획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대회가 매년 지속해 나가면 교회와 선교단체가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연합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와 선교단체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확대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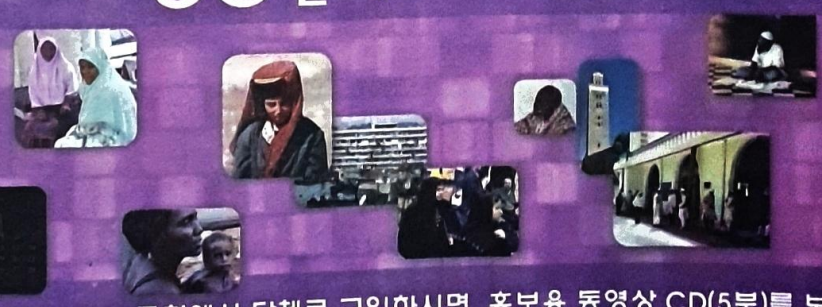


피: 선교대회가 다양한 영적 필요성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매년 주관단체를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어요.

조: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1년은 춘천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 다음해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2005년 10월 5일-11월 3일



중보기도 책자 권당 2,000원

문의 :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 (033) 252-1128

※ 교회에서 단체로 구입하시면, 홍보용 동영상 CD(5분)를 보내드립니다.

이번시간에는 춘천기독교 연합회 산하단체인 선교단체협의회(회장:피종호 목사)회원들과의 인터뷰입니다.

), 예수전도단(YWAM; 김준환, 신임 춘천지부장), 예수전도단(YWAM; 심일한, 전임 춘천지부장), 피종호(나눔교회, 선교단체협의회 회장)

에는 선교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에서 주관하면 교회와 선교단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연합이 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교회의 입장에서 선교단체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선교훈련의 열매는 졸업 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 열심을 가진 신앙은 졸업 후 직장과 사회, 그리고 지역교회에서 전도와 봉사 그리고 헌신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전도협회 전영진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장기적인 계획과 교회를 품는 넓은 마음과 안목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 앞으로 선교대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니 성시화된 춘천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저는 8월초, 대전에서 있었던 성서한국대회에 참가했었습니다. 전국에서 다양한 선교단체와 교회대학부 소속의 청년들 7백여 명이 모여서 통일한국을 바라보면서 한국사회에 대한 영적책임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강하게 마음에 닿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화 해야 할 선교지의 영적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복음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주목할만한 선교적 동향이나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구 영 록 간사

박: 선교사역은 영적싸움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영적 장애요소는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5, 6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복음을 제시하고 곧 바로 말씀양육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말씀양육 전에 내면의 문제를 치유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복음을 제시했을 때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적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예전과 비교해 볼 때 한참의 시간이 지나야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점입니다.

구: 저도 동감하는 문제입니다. 종교나 진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대가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가정이 매우 많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세상적인 문화로 빈 공간을 채워온 세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비관적으로 보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면 반드시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고, 더 큰 헌신자로 세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후배 간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섬김을 실천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영적실제를 경험하게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교단체가 변화하는 환경에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 어린이전도에 있어서도 영적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인터넷입니다. 또한 선진사회로 나아가면서 어린이들과 접근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으로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 성추행 등등의 범죄 증가 요인으로. 반면에 제3세계 어린이 전도는 활짝 열려있습니다. 사역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어린이 전도의 대안으로 주말캠프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5일제가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만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 되기 쉽습니다.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훈련하고, 균형 잡힌 정서적 함양을 위한 심리치료 및 레크레이션을 준비하여, 주말캠프를 운영하면 전도를 위한 매우 전략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전 영 진 간사

구: 저희 단체에서는 8월에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청년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영성을 일깨워주는 찬양팀의 활동이 매우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만의 문화를 이해해서 영적으로 유익한 선한도구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김: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예수전도단에는 "파워팀"이라는 전도팀이 있습니다. 차력사(차력:약이나 신령의 힘을 빌어 기운을 얻음)들이 증심이 된 팀입니다. 돌이나 판자 등을 격파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외칩니다. 이것을 본 많은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역동적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화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접촉점을 주는 계기가 됩니다. 현대문화가 세속적이고 부패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선한 전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독인들의 과제가 있다면, 현대문화를 성서적인 시각으로 연구해서 하나님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조: 이렇게 좋은 모임을 늦게 가지게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군요. 어려운 시간 내주시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자주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각자의 선교단체에서 경험했던 좋은 정보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애로점을 파악하고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을 모두 품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성시화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만드는 산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더욱 부흥하며 발전하는 모든 선교단체들이 되시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김 준 환 간사

일 시 : 2005년 8월 26일
장 소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진 행 : 조영춘
글정리 · 사진 : 정재호, 김미경





소개합니다

예수사람운동





예수사람운동(대표:길선희 간사)은 1996년 2월 청소년 복음화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창립된 청소년 선교단체이다. 춘천의 21개 중고교 기독동아리를 세워 양육하고 있으며 경기도 양평과 양구에 지부를 두고 있다. 이 땅의 청소년들을 "영성과 인격과 실력이 함께 성장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켜 학원의 복음화를 이루고 민족의 미래를 책임지며,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 받게 하는 것이 예수사람운동의 비전이다.

예수사람운동의 주사역은 학교 내 예배, 제자 양육, 성경공부, 기도모임 등이며 홀리키즈(Holy kids) 찬양팀을 통한 정기적인 찬양 집회를 열어 청소년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훈련시키는 찬양 사역도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지도자 양성 사역을 통해 청소년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 사역이 지속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겨울 단기 선교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선교사로의 비전 혹은 선교적 삶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단기선교의 장점을 활용하여 선교지의 영적 부흥을 돕고 있다. 마지막으로 후원자들을 통하여 우수 청소년 혹은 불우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청소년 장학 사역도 하고있다.

예수사람운동은 스텝들과 청소년들의 영성을 담당하여 양육하는 에뮤단(예수사람양육목사단)과 휠퍼들을 양육하고 청소년 양육을 연구하며 예수사람운동을 이끌어가는 간사진, 청소년들을 양육하며 섬기는 휠퍼와 휠퍼가 되기 위하여 양육 받는 인턴 휠퍼로 그 스텝이 구성되어 있다. 양평 지부(대표:김현민 간사)는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지도자들을 양성하여 한국교회 교회학교를 준비케 하고 있고, 양구 지부(대표:윤현락 간사)는 지역교회와 연합하여 청소년들을 통한 양구 전체의 복음화를 꿈꾸고 있다.

예수사람운동의 주요 휠사로는 분기별로 갖고 있는데, 겨울에는 시험을 마친 고3과 중3을 대상으로 하는 "33영성훈련"을 통해 신앙 및 인성훈련을 하고 있다. 한 달간의 훈련과정을 마친 청소년들은 함께 인도네시아나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하게 된다. 봄에는 청소년 리더십들의 수련회와 함께 각 학교 기독동아리들의 발대식이 있으며, 여름에는 "예수캠프"라는 청소년전문 수련회가 있다. 가을에는 학교 전도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회적 행사가 아닌 여러 휠사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예수사람운동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소망하며 리더십 청소년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교회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중고등부 교사 교육이나 중고등부 운영 컨설팅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중고등 학생들에게 알맞은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어 놓았는데 계속 수정 보완하여 한국 청소년들에 가장 적합한 과정을 실은 교재를 만들 예정이다.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청소년들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때를 따라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 시키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섬김의 본을 받아 겸손하게 종된 심정으로 섬기고 싶다. [예수사람운동 ☎244-5400 cafe.daum.net/holykids]

영혼의 양식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출애굽기14:21-25]



남춘천그리스도의교회 박종식 목사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지금 그 백성을 출애굽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참한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의 세계를 향해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여정에서 숨 막히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바로 왕이 천하무적의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대한 홍해바다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죽음의 이두운 그림자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영도자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14:13-14]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실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하게 사실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아직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바다 한 가운데를 육지같이 가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격해 오는 애굽의 군대는 흑암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명의 빛을 비추시고 거대한 동풍으로 홍해바다 한 가운데를 가르셨습니다. 바닷물은 거대한 벽이 되고, 그 아래는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는 이 장엄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그 뒤를 따라 오는 애굽의 군대를 향해서는 다시 바닷물을 덮으심으로 홍해바다 한 가운데서 떼죽음을 당하는 기적의 현장을 보십시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왜 이런 기적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백성으로 믿게 하시려고 살아있는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넌 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출15:1-2]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사실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름만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도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내 앞에 가로 놓여 있는 홍해바다를 능히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 앞에 계십니다.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능히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를 보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현실이 내 인생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홍해바다가 반드시 갈라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고 나아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의 날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춘천에서 전국으로, 세계로...
예수 향기를!!
교회현수막 전문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천일디자인"만 허도 됩니다.
천일기획(디자인)
T.255-5722 F.256-5722

그리스도인들이 맞는 추석명절

I. 추석명절

음력 8월 15일은 추석, 한가위, 가배(嘉排), 중추절(中秋節)이라 불려지는 우리 민족의 오랜 옛날부터 내려온 큰 명절이다. 춥지도 덥지도 않으며 높고 맑은 하늘, 풍성한 과일과 햇곡식, 저녁이면 동산에 둥글게 떠오르는 달, 농사일도 거의 끝나 한숨을 돌리게 된 일손, 어느 모로 보나 1년 중 가장 좋은 이때를 최고의 명절로 삼아 왔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추석이 되면 아침 일찍 새 옷을 갈아입고 추석 차례를 지내고서 어른들을 앞세우고 조상들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며 멀고 가까운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한다.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돋아 오르는 달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놀이와 장만한 음식으로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오뉴월에 땀 흘려 일한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이때야말로 "오월 농부, 팔월 신선"이란 말을 실감하는 때이다.

II. 추석 명절의 의의

삼국사기에 나타난 추석 명절의 기원을 보면 신라 때 두 편을 나눈 여인들이 한 달 동안 길쌈을 하여 척수를 재서 승패를 가리는데 이때 진 편은 이긴 편을 대접하고 진 편에서 한 여인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탄식조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다.

1. 길쌈을 하게 하므로 명절맞이에 들떠 있는 여인들의 마음을 가라 앉혀 낭비를 줄이고,
2.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3. 농사지은 수고에 대해 보답하는 결과가 되어 사기를 북돋우고,
4. 각 마을의 단결심을 강화하고 서로 융화하게 하였다.

III. 그리스도인의 추석 명절

우리는 전통적 절기의 미풍양속을 신앙과 생활에 유익하도록 복음화 시켜야 하겠다.

1. 그리스도인들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과 함께 모여 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먼저 만물의 주인이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결실과 수확을 함께 있어서 감사예배를 드려야 한다.
2. 조상에게 차례를 드리는 대신 감사예배를 드린 후에 온 가족 일가친척이 모여 그 동안의 지난 일들을 서로 나누며 믿음 안에서 위로, 격려, 교제함이 좋은 줄 안다.
3. 이느 교회는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교회도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결실과 수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해야 한다.
4. 성묘는 가되 절하지 말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묵념으로 조상의 은공을 기리며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법초하는 일은 정성스럽게 하지만 주일은 피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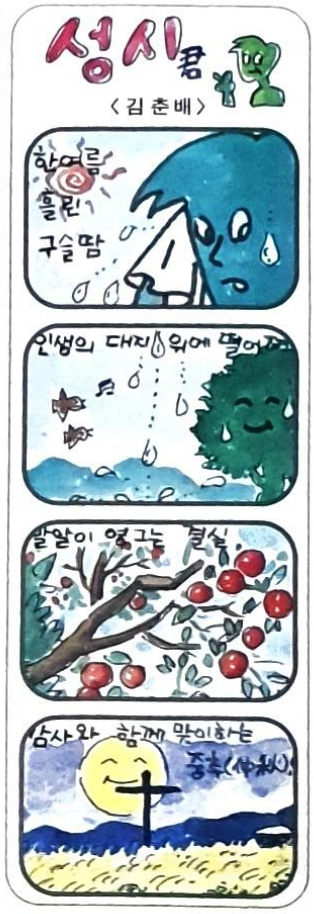
[급 편집부 이영규]

[추석명절 예배순서]

시간: 오전 중(형편대로) 사회 설교: 가장이나 대표

● 묵 도	- 사회자는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린다.	다 같이
● 신앙고백	- 모르는 가족에게는 사도신경을 읽게 한다.	사도신경
● 찬 송	- 305(사철에 봄비람) 222(보아라 즐거운 우리집)(택일)	다 같이
● 기 도	- 아래의 내용을 담아서 가) 창조와 수확의 하나님께 감사 나) 온 가족의 건강과 명절에 함께 모여 예배함을 감사 다)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생활에 대한 감사 라) 교회와 이웃과 나라가 잘되기를 간구 마)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기도	가 족 중
● 성경봉독	- 시50:1-15, 22-23(구약837P)	가 족 중
● 설 교	- [감사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별지 낭독 또는 요약)	설 교 자
● 찬 송	- 460(지금까지 지내 온 것) 410(아 하나님의 은혜로)(택일)	다 같이
● 주 기 도		다 같이





예 향

집 착

엔리 나웬이 쓴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정신병원에 정신발작을 자주 일으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발작이 일어나면 기물을 파괴하고 욕기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늘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살았습니다. 간호사들이 그 손을 아무리 펴려고 해도 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날은 작정을 하고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손가락을 하나씩 펴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가락 펴고, 두 번째 손가락을 펴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을 펴니까 땡그랑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녹이 시퍼렇게 슨 1센트짜리 동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엔리 나웬이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1센트라고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 여인은 그 동전을 잃어버리면 자기 존재가 전부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있는 힘을 다해 동전을 움켜쥐고 몇 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주 잘못된 것에 집착하는 존재입니다.

장뇌삼과 각종 한약재를 첨가한! 웰빙 삼계탕!

웰빙 삼계탕 장 삼 원

귀한 분을 모신다면 장삼원으로 오십시오!
건강을 생각한 혼(魂)이 담긴 삼계탕, 정성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



◆ 메 뉴
장뇌삼 삼계탕 · 한방 삼계탕 · 닭도리탕 · 한방백숙

※대형주차시설 완비
※각종모임을 위한 단체 연회석 완비

춘천시 후평동 시내버스 종점에서 소양댐방향 500m지점
예약문의 (033)254-9191 · 9199

앤투어 ntours

- 항공권 전문
- 전세계 호텔 예약
- 여권 및 비자 업무
- 국내 · 외 여행 일선 (수학 · 졸업 여행)
- 배낭여행 · 어학연수
- 전세 버스 알선
- 신혼여행
- 유로패스/JR패스 예약 및 발권
- 해외선교 후원

대표 김 지 현 집사(춘천동부 교회) (011-9057-3946)
TEL:244-7400 도청 밑에 위치

/ 포 / 토 / 에 / 세 / 이 /

이 가을의 발걸음



시. 김 홍 주(시인, 효자감리교회 권사, 민예총 춘천 지부장, 성수고 교사
시집으로 '시인의 바늘' 외 동시집 다수)
사진. 편집부 최 영 조

주께서 반고람에
몸을 너너히 대사
그 이람을 림림하게 하시며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주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의 손길 깊은 가을 날
온 대지 위에
기쁨의 초장들이 충만합니다

어느새 내 길에 찾아와
문 두드리며
온 해의 관을 씌우시는 주님

당신의 감에 기쁨 가득하여
좋길 위에서
당신과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론 질곡의 가시 길이었으나
광야의 거친 목마름이었으나

당신이 찾아와 준 내민 사랑
숨은 당신을 향해 찰랑이는
입술의 찬미소리로 아득합니다.

열린광장 허천 국회의원의 주요 의정활동

허천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년 동안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공기관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등을 제기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독특한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시선을 끌어 모았다.

올해 3월 27일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일정 구역 내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재산권자들이 법 규정과는 법도로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 등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협정제(주민협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모든 것이 찬반이 있고, 장단이 있으나 허천 의원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선 장로로써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새벽마다 기도하였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교회를 통해 흘러나오는 스피커 소리며, 교통문제, 일조권 등을 이유로 교회 신축에 반대할 경우 교회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었다. 심한 경우 증, 개축조차도 어려워질 것이다.

건설교통위원이기도 한 허천 의원은 여야를 떠나 기독의원과 함께 모여 입법반대를 위해 노력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열정을 보여 주었다. 입법을 피할 수 없다면 교회만이라도 이 법으로부터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이 법은 사실상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각종 건축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지역 주민 스스로 환경과 전통 등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법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허천 의원은 장로로써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야 함을 잊지 않았다.

또 허 의원은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현장, 소양강댐 보조 여수로 공사장, 평화의 댐 등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써 도내 SOC 사업장을 단독으로 방문해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강동식 건설교통부장관을 춘천으로 초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도록 하는 등 국회에서는 보기 드문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해왔다. 더욱이 최근 최대 이슈로 부상한 소위 '행담도 게이트'를 지난해 국정감사 때 최초로 문제점을 제기한 뒤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파헤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춘천시의 현안인 세계레저총회 유치를 위해 국부조정실,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 8개 부처를 직접 방문해 지원을 요청했고, 국회 건설교통위원이라는 입지를 적극 활용,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개통시기를 1년 앞당길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정부가 춘천 미군기지 이전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안도 공동 발의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밖에 허의원은 지난 19일 우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고 한국관광공사 춘천 유치와 국도 5호선 춘천-홍천 구간 4차선 확장 등 강원도 SOC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지원을 건의하기위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을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 허천 의원의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춘천의 모든 동역자들의 많은 사랑과 기도를 소망한다. [취재 편집부]

행사안내

▣ 춘천 선교세계관학교 9기 개강 ▣

MPS에서는 선교의 성경적, 역사적 배경과 선교전략 및 타문화권 선교에 대하여 체계적이며 심도 깊은 내용을 다루어 선교적 세계관을 확립하고, 보내는 선교사 내지 나가는 선교사로서 실제적인 안목을 갖춘 21C 선교 지도자를 키워내고 있다. MPS를 통하여 세계를 품은 World Christian으로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

일정: 2005. 9. 3(토) - 오리엔테이션,
9. 10(토) ~ 12. 3(토) - 강의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8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주관: 비하르선교협의회, 베드로선교센터
회비: 등록비 55,000원(교재비 포함)
매주 자유 헌금
문의: 이수란 간사 019-9903-1148
E-mail: soorans un@hanmail.net
인터넷 홈: http://www.mpscc.net

▣ 월드비전 ▣

♣제12회 춘천어린이연합찬양축제
1. 일시: 2005년 9월 3일(토) 오후 4시
2. 장소: 석사감리교회
3. 참석예상인원: 300명
4. 내용: 석사감리교회, 소양성결교회, 순복음춘천 교회, 우두감리교회, 인디옥감리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등 8개 교회의 어린이 성가대가 참가하여 찬양축제를 한다.
※축제에 참석하는 모든 어린이에게 기념품을 드립니다

♣월드비전 자원봉사자 리더회 나들이
1. 일시: 2005년 9월 6일(화)
2. 장소: 서울(삼성 코엑스몰, 서울시노인복지센터)
3. 참석예상인원: 16명

♣ 등록기정 및 제기아르신 추석맞이 물품전달
1. 일시: 2005년 9월 5일(월) ~9월 15일(목)
2. 내용 : 맞이하여 복지관의 등록가정 및 재기아르신에게 추석물품을 전달한다.
3. 문의 : (033) 254-7244

사랑의 빛 월드비전 World Vision
강원지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www.gangwon.worldvision.or.kr
강원 춘천시 효자1동 373-90
· 한사랑(1만원) · 배사랑(2만원) · 늘사랑(3만원)
월드비전 후원계좌 : 농 협 240-01-078120
☎ 254-7244 조 흥 515-01-038052
우체국 200022-01-001322
예금주 월드비전

춘천 의암리 기도원
부설 쉼터 양로원
정국성 목사

의암기도원전경

예배당

양로원

휴식공간
예배 안내
● 주간 집회
매주: 월~토요일 까지
시간 : 새벽 6시, 낮11시, 저녁8시
● 목요 찬양집회 - 저녁8시
● 금요 철야집회 - 금요일 밤10시부터
쉼터양로원 안내
● 노인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 치매중풍 등 몸이 불편하신분
● 사정상 가족이 모시기 힘든분
● 혼자 살고있는분
● 일기암환자 요양 및 기도생활
주소 :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231-2(의암댐발전소 의암유원지내)
전화 : (033)262-7923~4, 262-5694, 010-6388-7929

춘천시 지정 모범업소
유림닭갈비
대표 : 최 순 복 권사
온의동 닭갈비촌 참복 원조집
순수국산닭만 사용하는 맛과
기쁨을 주는 믿음의 업체입니다.
본관 253-5489
별관 251-5489


♡ 강원도민사랑결의대회(백두대간 햇불기도회)







♡ 해비타트 벤개건축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 춘천지회는 지난 8월 1일(월)~6일(토) 춘천시 신북면 천전리 소망의 마을에서 '한국벤개건축 춘천 2005' 행사가 열렸다. 이 기간 동안 민족사관고, 강원대, 제주대, 빙그레, 볼보 등의 기업체인들 등 3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돌아갔다. 춘천지회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춘천문화탐방, 격려의 밤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였다. 춘천지회는 9월 14일(수) 오후2시 소망의 마을 입주식을 가질 예정이다.

♡ 춘천기독교연합회 임원회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유진형 목사)는 지난 8월 31일(수) 오전 7시 안디옥교회(구 남춘천교회)에서 '2006 춘천 성시화를 위한 춘천선교대회'를 위한 임원회 모임을 가졌다. 춘천선교대회를 위한 준비위원장을 선출(조영춘 목사)하고 준비위원회를 위촉하고, 프로그램 순서를 논의하였다. 춘천선교대회는 부흥회가 9월 25일(주일) 저녁부터 27일(화) 저녁까지, 28일(수)부터 10월 1일(토)까지 성시화 포럼, 천선축구대회, 연합찬양축제, 복음성가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게 된다.

강원 총 기독교연합회에서는 8월 28일(주일) 오후 1시 30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강원도민사랑결의대회(햇불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약 12,000 여명의 강원을 사랑하는 18개 시·군의 성도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강원도민사랑운동본부' 발족식을 갖고 2014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1부 강원아리랑 행연을 시작으로 70, 80년대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2부 '백두의 붉꽃, 세계의 빛으로'으로 진행됐다. 임신영 강원기독교연합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선도 광림교회 원로목사가 설교를, 탭리트 김혜자 권사가 간증을, 김진선 도지사, 한승수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 허천 국회의원이 축사를, 류종수 춘천시장과 유진형 춘천기독교연합회장이 환영사를 하였다. 그리고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기금이 김진선 도지사와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이명신 퀸드비전 강원지부장에게 전달되었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된 3부 'MY LOVE 페스티벌'에는 MC릉, 마아, 촌자, 하하, 조혜련, 김조한, 서문탁 등 인기가수들이 축하공연을 하여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다.

♡ 광복60주년 기념 연합예배



지난 8월 14일(주일) 오후 7시 30분 순복음춘천교회에서는 춘천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춘천교역자연합회가 주관하는 '광복절 60주년 기념예배'가 있었다. 평화교회 한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장로연합회장 위운식 장로가 기도, 기장총회장 김동원 목사가 '돕이 하나가 되리라'를 주제로 설교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춘천시 복음화와 교회 부흥을 위해 김헌곤 목사(새순교회)와 백낙영 목사(남부제일교회)가 특별기도를 하였다.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유진형 목사의 인사말에 이어 허천 국회의원과 류종수 춘천시장의 축사가 있었고,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 콘서트 콰이어 공연



지난 8월 10일(수) 오후 7시 30분 새순교회에서는 '콘서트 콰이어'의 부활절 칸타타 "예수" 공연이 열렸다. 1984년에 창립된 장로교신학대학교 콘서트 콰이어는 성가 합창을 통한 선교와 교회음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르네상스, 바로크 및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순수교회음악을 연주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매년 정기연주회와 순회 연주회, 해외 연주를 하고 있다.

♡ 예수제자운동 2005 세계선교대회

지난 8월 1일(월) - 6일(토) 강원대학교 백령문화관과 JDM 훈련센타에서는 예수제자운동 2005 세계선교대회(Mission 05)가 열렸다. Mission 05는 JDM에서 매 4년마다 선교를 주제로 하여 개최되는 청년, 대학생을 위한 선교수련회이다. 이번 대회에는 12개국 70여명의 해외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총 1,050명의 청년대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방을 향한 캠퍼스 행진"을 주제로 윤태호 목사(JDM대표), 조경호 목사(수원형제침례교회, 코스타 강사), 강승삼 목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김진경 총장(연변과학기숙대학, 평양과학기술대학), 이동휘 목사(전주 안디옥교회, 바울선교회 대표), 박임신 선교사(케냐) 등 50여명의 선교사와 선교 전문강사가 강의를 하였다. Mission05를 통해 전 세계 미전도 종족과 8,000여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 350명의 젊은이들이 1년 이상 장·단기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하였다.

♡ 장로연합회 야유회

지난 8월 11일(목) 장로연합회(회장 임운식)는 오산 광은기도원(세계 성막복음센터) 성서체험관 견학을 하였다. 약3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성경적 유물관, 노아방주관, 토기전시장, 복식전시장, 그리스도의 갤러리, 예루살렘 성전 전경, 예수님의 일상생활을 나타낸 전시관을 체험하고 돌아왔다. 이날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유진형 목사와 교역자연합회장 김유식 목사는 장로연합회 성서견학을 위해 지원금을 전달하였다.

강원도 경영인을 위한 기독경영인 아카데미 제1기생을 모집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경영인상을 확립시켜 21세기에 경영분야 전문인 선교사로 양성

※ 대 상 : 강원도내 기업경영인, 직장인 및 경영에 관심이 있는 기독교인
※ 기 간 : 9월 22일-12월 8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10시)
※ 장 소 : 춘천동부장로교회 2층 소예배실
※ 회 비 : 25 만원(계좌: 농협 253-12-046476 김현실- 강원 기독경영인 아카데미)
※ 인 원 : 25 명(서류 심사 또는 면담으로 선착순 선발)
※ 제출서류 : 신청서, 추천서
(춘천동부장로교회 사무실이나 홈페이지www.chdongbu.or.kr 일반자료실 신청양식)
※ 접 수 : 사무실(tel.252-5959, fax.241-1999)이나 이메일(hwan0152@hanmail.net)
※ 신청마감 : 9월16일(금) 오후 5시
※ 주 최 : (사)한국기독경영연구원/ 후 원:춘천성시화운동본부

<문 의>
- 총 무: 김지현 (앤투어, 244-7404, ann7400@hanmail.net)
- 간 사: 백종진 (제이맴, 016-779-1275, peakgod@naver.com)
- 춘천동부장로교회 : 원지선(252-5959, hwan0152@hanmail.net)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김미경(256-1260, hc1260@hanmail.net)

<강 사>
- 김인서 목사(춘천동부장로교회), 김재영 교수(강원대), 노전표 교수(연세대)
박의범 교수(강원대), 신세철 회장(동승아크), 안동규 교수(한림대) 임성빈 교수(장신대)
장순용 사장(비엠넷 대표), 천성만 교수(국제생산성본부), 한상열 사장(풍양에버니스)
한정화 교수(한양대 등

사 설



무엇이 '문화인' 인가

박 상 호 목사
본보편집장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

나는 70년대 말엽에 2년간 모회사의 직원 자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았었다. 그때 행정적인 일을 돕는 사우디인 섭외 담당자가 있었는데, 그는 정보계열의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그는 스스로 자신은 문화인이라고 말한다. 왜 그러하냐고 물었더니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다. 첫째는 화장실에서 용변 후 화장지를 사용하는 것이고(그들은 용변 후 화장지 없이 왼쪽 손을 사용하여 처리하고 물로 씻어낸다), 둘째는 식사 때 포크와 나이프 그리고 스푼을 사용하는 것이며(그들은 식사 도구 없이 오른쪽 손으로 직접 집어 먹는다), 셋째는 아내가 한 명뿐이라는 것(그들은 마호메트 이후 전쟁미망인이 많이 발생해 궁여지책으로 만들었던 제도인 일부다처제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세 명의 아내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매우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미 우리는 화장지를 사용하고, 수저를 사용하고, 아내는 한 명뿐이니, 그래서 우리는 과연 문화인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얼마 전 TV프로그램에 신발 신는 게 이야기가 방영되었었다. 집에서 나갈 때는 꼭 신을 신어야지 안 그러면 등을 밀어내도 결사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쩐지 게는 게다워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게가 신발을 신는다고 인간일 수는 없다.

근간 성도의 생활 모습의 정의가 참 어렵다. 어떻게 보면 너무 거룩해서 하나님이 되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자유로워서 불신자 같기도 하다.

개에게 물어봤다. 요즘 도둑이 들어와도 개도 안 짖는다고 하니 어찌된 일이냐? 개의 대답은 간단하다. 주인부터 몽땅 도둑놈들인데 누구를 보고 짖겠느냐는 것이다. 그래도 개는 짖어야 밥값을 한다. 그래야 개로 인정되는 것이다.

아내가 한 명뿐이고,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사용하고, 식탁에서 포크 나이프 스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화인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치 아니하고 맨 손을 사용하기에 미개인이라고는 할 수 있다.

근간 기독인과 비 기독교인이 구별이 안 된다고 한다. 교회와 교제 및 구제단체가 구별이 안 된다고 말하니 염려가 된다. 교회는 건물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아래 모인 구원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예수 이름만 외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 이름만 떠듬썩하게 외치지 말고 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한다. 성시화를 외치는 우리 춘천부터 참 교회와 성도의 참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교적 자세로 신앙을 지켰으면 하는 바램을 간절히 소망한다.

❀ 알려드려요

◆ 예수사람운동
1) '뚝딱모임'
일시: 9월 3일(토) 장소: 카페 크리스찬
1) '하이즈 쉽'
일시: 9월 24일(토) 오후 6:30 장소: 미정
주최: CBS춘천방송과 공동 주최
문의: 244-5400/018-305-5171 (cafe.daum.net/holykids)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개강 채플'
일시: 9월 2일(금) 오후 7시 장소: CCC 아카데미 센터
2) '중·고급 지도자 훈련(LTC)'
일시: 9월 26일(월) ~ 29일(목) 오후 7시
장소: CCC 아카데미 센터
문의: 254-5776

◆ 예수전도단
1) 예수전도단 춘천 화요모임
춘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동부장로교회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문의: 252-1128
2) BEDTS 'Open 강의'
주제: 중성과 위탁
강사: 문희곤 목사(예수전도단현 대표)
일시: 9월 22일(목)~23일(금) 오후 7시~11시
장소: 춘천성광교회
대상: 관심있는분 누구나. 회비무료.
문의: 252-1128

◆ JDM
1) 개강 예배
일시: 9월 1일(목) 오후 7시 장소: 춘천온누리교회
2) '가족의 밤'
일시: 9월 23일(금) 오후 7시 장소: 미정
3) '직장 모임'
일시: 매주 월요일 리더모임, 목요일 전체모임.
3) '재학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대학별로정기 예배
월-금 오전 8시 큐티 모임, 오후 6시 기도모임
각 소그룹별로 정한 시간에 소그룹 성경공부.
문의: 252-3192 / 011-9068-3192

◆ IVF
1) '제자학교 개강'
일시: 9월 5일~11월 마지막 월요일까지 회비: 30,000원
장소: 아시아선교원
2) 'AMP 개강 예배'
일시: 9월 12일(토) 오전 9:30-12:00
장소: 아시아선교원 문의: 252-5200

◆ 선교단체협의회
1) "Moderator 양성과정"
일시: 10월 20일(목)~22일(토) 2박 3일간.
내용: 토의, 토론, 의견수렴기법, 강의기법.
대상: 목회자, 선교단체 간사, NGO교육활동가, 초중등 교원, 사회교육 강사, 교회학교 교사 등
회비: 15만원.
신청: pmyoungin@hanmail.net 농협 281-12-207146 (전영진)
9월 12일까지 마감(마감 후 회비 20만원) 선착순 30명
문의: 018-292-8839 전영진

◆ GBT
1) '순교자 故 송배영 선교사 추모 1주년 예배'
일시: 9월 1일(목) 오전 11시 장소: 대전 공원묘지
2) '비전기도회'
일시: 9월 5일(월) 오후 7시 장소: 서울 삼광교회
입숍: 조중환 선교사(파푸아뉴기니)
3) '가을학기 워크숍 프스쿨 개강'
일시: 9월 12일~12월 12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춘천예일교회(팔호광장 부근)
문의: 252-3927, 011-367-6085 김대원 간사 033@gbt.or.kr

◆ 애비타트 '소망의 마을 2005년 입주식'
일시: 9월 14일(수) 오후 2시
장소: 춘천 신북읍 4리 162-1 (상천초교 뒤)
문의: 254-0009

◆ 2005 춘천선교대회 (부흥회)
일시: 9월 25일(주일)~ 27일(화)
장소: 석사감리교회
강사: 장경동 목사(대전 중문침례교회)
문의: 256-1260

◆ 교역자연합회
1) "순틱목사 위로회"
일시: 9월 9일(금) 오전 8시 장소: 오산 광은 기도원

◆ 제9회 강원기독교인 미술인협회전
일시: 9월 24일(토)~30일(금)
장소: 춘천미술관(구 중앙감리교회)
문의: 254-7697

◆ 춘천 선교세계관학교 9기 개강
일정: 9.3(토) - 오리엔테이션
9. 10(토) ~ 12.3(토)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8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문의: 이수란 간사 019-9903-1148
인터넷 홈: http://www.mpscc.ne

<성시신문 후원자를 찾습니다>

후원계좌: 농 협 203-02-280238 조남진
조 흥 716-01-001389 조남진
우체국 200022-02-129749 조남진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강촌감리교회	나눔성결교회	남춘천감리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암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새순성결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사우동장로교회	서부감리교회
석사감리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공침례교회
예담교회	일신교회	주천양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동부장로교회	춘천성결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한빛장로교회	한일현수막	헤비타트 춘천지회
의암기도원	엔투어	유림닭갈비
보인테리어	디티피아	농협선교회
김 준 언	김 길 홍	김 현 철
김 영 명	민 병 업	박 동 환
성 기 온	신 성 균	신 종 철
안 미 애	안 정 숙	엄 필 남
오 흥 수	이 용 규	이 원 기
이 판 호	이 학 규	유 근 창
장 기 영	정 천 복	조 은 제
최 경 용	최 상 호	최 치 광
한 희 현	함 병 찬	허 순 영
홍 성 운	홍 순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업



한우마을정육점

대표 김관섭 집사 이인숙 집사 (새순교회)

희소식 한우, 암소, 돼지, 수입고기, 최저가로 도소매. 넉넉한 인심과 신속배달.

위치 후평 3동 주공 3단지 아파트 입구 ☎ 033)255-0403, 256-0403 011-371-2634, 018-216-0403